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현재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돕고 있다. 현지에서 직접 해외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술수요를 받아 국내 연구책임자를 매칭하고 돕는 교두보 역할을 통해 생기원이 글로벌 연구원으로 나아가는 데 노력하고 있는 국제협력부. 그들이 그리고 있는 생기원의 청사진은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상국 부장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이상국 부장에게 듣는 국제협력부의 청사진

## 글로벌 리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미래를 이끌다

### Q. 국제협력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부의 역할은 생기원 고유의 미션을 동일하게 수행하되, 그 무대를 국내가 아닌 해외로 넓혀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R&D, 기술개발, 기술지원, 기술이전을 해외 각 사무소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단, 여기에 ‘국제협력’이란 업무를 하나 더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차원의 대외적인 활동으로 미래부나 산업부 등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활동에서 생기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생기원 자체적으로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기원 해외사무소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네 개의 나라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Q. 해외사무소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해외사무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생기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사무소장이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을 본원에 요청하면, 해당 기술에 가장